

§ 생명과 죽음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생명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생명의 경시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인간 생명이 검토의 대상이 되면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도덕적 고찰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에서 생명윤리라는 분야가 도덕, 윤리의 한 분야로 현재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생명과 직접 관련된 도덕적 고찰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죽음에 대한 고찰, 낙태와 배아의 도덕적 지위, 인체실험의 윤리적 문제, 유전공학에서 생식세포 발달과정의 조작, 유전자 조작, 배아복제가 있다. 그리고 인간 복제에 관한 여러 논쟁으로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사망자의 권리와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논의, 태아의 세포 및 뇌세포의 사용, 생체 기증, 장기매매의 문제, 장기이식과 분배 문제 등등.

이러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윤리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관련된 윤리로 우리는 동물보호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동물보호 윤리는 동물실험의 문제와 동물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인원까지 포함하는 인권개념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다. 이보다 더 확대된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가 환경, 생태 윤리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과학발전과 관련된 생명의 문제 역시 현재 중요한 윤리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인간 생명, 너 나아가 인간의 삶이다. 따라서 죽음이 없는 삶이 가능한가? 죽음에 관해 이해할 수 없이 어떻게 삶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명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가? 인간 삶, 인간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생명과 그 끝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등등이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영혼과 신체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이 바로 인간이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로서 파악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 역시 알고 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나 철학에서 영혼이 인간 생명의 원리로 제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 역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영혼과 신체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영혼과 신체, 이 둘은 한 인간을 통일체로 만든다. 몸만 살아있는 사람의 삶과 영혼만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는 다양한 기관과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뇌 이외의 많은 신체의 부분은 대체가능하고 없어도 된다. 뇌는 인격체의 구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에게 개성과 인격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인정되는 어떤 특수 위치는 일정한 기관, 즉 뇌와 뇌의 특수한 기능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과 행동에 있어 영혼과 육체의 전체성에 관련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미 그의 정념론에서 영혼은 신체의 모든 부분에 공동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영혼은 몸의 어떤 부분을 자른다고 해도 더 작아지지 않지만 신체 기관의 집합을 와해시킨다면 신체에서 완전하게 분리된다고 주장한다.(30항)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신체 기관의 이식이 매우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심장이식과 관련하여서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의 식성이나 행동 양식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것은 심장이 단지 신체의 한 기관이 아니라 한 개인을 그 자신에게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뇌의 물질과 인간의 정신적 특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뇌와 정신의 관계, 그리고 의식의 문제는 인간 생명에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숨을 쉰다’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생명, 삶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가장 분명한 사건은 태어난다는 것과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죽음은 가장 확실하지만, 죽는 때는 가장 불확실하다.’(*mors certa, hora incerta*)라는 말이 있다. 생명에 있어 죽음이란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사건이며, 죽을 수 있는 존재만이 살아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체란 죽음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이란 현상 앞에서 인간에게 찾아드는 일차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인간 행동의 모든 가능성이 남김없이 부서진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과연 죽음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피해야만 할 어떤 것인가? 우리말에 죽음은 ‘끝장,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세포 내의 연속적인 생리적 변화가 불가역적으로 되어 정지되는 상태’(한국어 대사전) 정도로 설명된다. 영어에서 죽음이란 ‘동식물에서 소생의 가망이 없는 모든 생체 기능의 영구적 정지, 생명의 종결, 또는 그러한 사실이나 행동 및 과정’(웹스터 사전)이라고 정의되거나, ‘생명의 부재. 유기적 생명체가 급격하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기능이 정지되는 현상’(브리태니커 대사전) 등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의 현실’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몸이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몸이 없으면 자아, 나라는 존재도 없다. 나의 동일성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 몸에 의한 생명이 있고, 그 후에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몸 없이 이루어지는 삶은 없다. 초월적이고 신비한 것을 상상하고 신앙하고 경험하는 것도 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몸은 곧 사람이고 삶이다.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철학자는 “나는 나의 신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전의 수업에서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몸은 인간의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 몸이다.

그런데 죽음이란 몸이 더 이상 현존하지 않게 되는 계기를 일컫는다. 몸의 부재, 그것이 죽음이다. 주검은 죽음 이후의 몸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주검은 이미 몸이 아니다. 죽음 이전에는 몸이었지만, 주검은 죽음을 계기로 매장되거나 연소되거나 소멸된다. 따라서 몸이 있어 맺었던 관계도 죽음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는다. 관계를 맺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꿈도 사라진다. 몸으로 실현한 삶의 흔적을 남아도, 그 주체였던 몸은 이제 없다. 그것이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들도 그 전문적인 용어들(가령, 심장사, 뇌사)

을 유보한다면, 몸의 부재를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언제 어떻게 그 몸의 지속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다만 죽음 발생을 서술하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어떻게 일어나든 죽음은 결과적으로 ‘몸의 부재’이다.

사회학적인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그 관점에서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개체의 소멸이 곧 죽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체인 몸의 소멸을 뜻한다. 종교에서도 죽음을 논의하는 것은 그 몸이 소멸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몸의 현실성을 간과한 어떤 죽음 논의도 관념적이고 비실제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이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의는 다만 ‘죽음 현상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몸의 부재라는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죽음관’ 내지 ‘생사관’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소멸이 지금 여기에서 몸으로 살이 있고 그 소멸을 향해 가는 몸으로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물어서 그 해답을 지니지 않으면, 죽음은 어떻게 서술되더라도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그 몸의 소멸을 의미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미화된 죽음이 곧 나에게 절실한 죽음의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것이 있다. 죽음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의 기간이다. 그렇다면 온전한 삶을 ‘살려면’, 출생과 죽음, 곧 처음과 끝의 지표가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삶이 총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체로 죽음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끝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 관한 생각을 세워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먼저 우리보다 앞선 죽음을 맞이했던 성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대의 지혜들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전통과 가정의 분위기도 간과할 수 없는 지혜의 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종교의 가르침일 것이다. 인류의 문화 속에서 종교라고 일컫는 문화 현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죽음과 삶을 규범적으로 가르친 것은 없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고 돌아간 옛 어른들의 죽음에 관한 이해와 각 종교들의 죽음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기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무속문화, 민중의 삶, 혹은 민간신앙을 다 포괄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죽음 이해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는 죽음을 불가사의한 현상이라든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변고라든지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죽음을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죽음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태도는 뚜렷하지 않다. 그것은 다만 삶이 지닌 어떤 ‘고비’로 간주되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음습한 죽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는다. 죽음은 공포이고 저주이기도 하다. 살아있음은 그것 자체로 죽음과 견줄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죽음관은 ‘어떤 죽음을 죽는가?’ 하는 것을 죽음 이해의 준

거로 삼고 있다. 그래서 ‘두려운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이 나뉜다. 예를 들어, 요사(夭死), 횡사(橫死), 원사(冤死) 등이 전자의 죽음이다. 병사(病死)도 두려운 죽음의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늙어 앓다가 고이 목숨을 거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노환은 ‘복 받은 경우’에 속하는 일이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잘 다듬어진 그림이 거의 없다.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없지 않고, 몸과 혼의 구분 또한 없지 않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다만 두려운 죽음의 경우에만 그런 구분이 꽤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우리의 전통적인 죽음관은 ‘자연주의적인 죽음관’이라고 일컬을만하다. 그저 물 흐르듯 바람 불 듯 그렇게 ‘죽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이러한 죽음관을 잘 드러낸다. 그러니 죽음이 심각하게 두려울 까닭이 없다.

유교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개진하고 있지 않다. 가령, <논어>에 보면, 공자님은 계로(季路)가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라고 하자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답변의 회피인가, 혹은 겸손의 표현인가? 어쨌든 우리는 유교의 경전에서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논의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교의 제사에서는 그 종교가 지닌 죽음관의 구체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사실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종교의 경전의 가르침 못지않게 그 종교가 지닌 의례라고 하는 사실이다. 유교는 의례를 통해서 죽음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에 의하면 제사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의례다. 사자(死者)는 생자의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제사는 바로 여기 없는 망자(亡者)의 회귀 의례라고 할 수도 있다. 제사를 통해서 생자는 망자와 삶을 공유한다. 망자가 어떤 공간과 시간에서 현존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생자와 망자가 공존하는 것이라는 이해이다.

이러한 유교의 죽음관은 두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한다. 하나는 자식을 통한 생명의 지속이 죽음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믿음이다. 혈연을 축으로 한 ‘가족주의’가 이러한 믿음을 현실화한다. 다른 하나는 생활공동체를 생자, 살아있는 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자와 더불어 이루는 공동체로 여기는 태도가 그것이다. 제사를 절대적인 사회적 규범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삶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유교는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것은 끝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없다. 이러한 유교의 죽음 이해는 특히 지난 반 천년 동안 우리의 죽음관을 짙게 채색한 것이다.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두렵다.’는 의식도 그러한 표징 중의 하나이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을 문제로 삼아서 시작된 종교이다. 오랜 불교 전통은 두 가지 다른 죽음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나는 죽음을, 죽음 주체가 다른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로 여기는 것이다. 전생(轉生) 또는 윤회(輪廻, samsara) 가 그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죽음을 계기로 다른 삶으로 바뀌어 이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죽음을 그저 삶의 종말로 여기지 않는다. 죽음은 오히려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전의 삶이 원인이 되고, 죽음 이후의 삶이 그 결과라고 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고통의 까닭을 깨달아 스스로 욕망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는 다시 사람이 되거나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에서 사람 아닌 존재로도 무수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연히 죽음 이후의 공간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정토, 열반, 극락, 지옥 등. 이 개념들은 공간을 기반

으로 유추되는 개념들이다. 결국 죽음은 삶을 완성시키는 ‘도덕적 계기’로 이해된다. 죽음은 고통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금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불교에는 이와 전혀 다른 죽음 이해도 있다. 그것은 아예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현실적으로 몸에 일어나는 죽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죽음이란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친다. 그리고 삶 또한 실재가 아니라는 주장도 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혀 알아듣지 못할 주장은 아니다. 사실 죽음은 삶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삶이 있어서 겪는 삶의 현실이다.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죽음을 내 생명 안에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내게 다가오는 밖의 실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다가 마침내 온전히 성숙할 때 내 삶을 완성시키는 삶의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을 분별하여, 죽음을 저주하고 그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의 올림포스 신화에서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는 하데스로 간다. 그리스 서사시로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하데스Hades라는 이름을 쓴다. 그리스어로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곳’ 또는 ‘알 수 없는 곳’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신들에게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면, 트로이 전쟁 중에 그리스 동맹군 편을 들던 포세이돈이 대지와 산을 흔들어대자 트로이의 도시들과 그리스군의 함선들도 흔들린다. 그러자 하데스가 놀라 고향을 치며 지상으로 올라온다. 이 이유는 신들도 싫어하는 하데스의 집이 인간들과 신들에게 드러날까 두려워서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데스로 가는 지도를 그려낸다. 그리스인들은 하데스의 위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약간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에서는 ‘영혼이 땅 밑으로 사라진다.’ 또는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오디세이아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데스를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가 하데스를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곳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데스는 땅 밑에 있으나 ‘서쪽’의 땅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케아노스 강을 지나서 있다. 서쪽인 이유는 태양이 지는 곳이라서다. 산 자들은 그림자의 나라 하데스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죽은 자의 세계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하데스를 찾아갈 수 있을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는 죽은 후의 영혼이 하데스로 가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죽은 자의 영혼은 신체로부터 빠져나온 즉시, 또는 매장 후에 하데스로 곧장 간다. 그러나 오디세이아에서는 영혼들은 하데스로 인도하는 존재로 헤르메스가 등장한다. 영혼의 안내자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영혼의 안내자로서 헤르메스는 살아서는 누구도 하데스로 갈 수 없다는 일반적인 명제에서 아무도 하데스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추론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죽은 자들을 하데스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특정한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죽은 곳이나 무덤 주의를 배회하다가 헤르메스의 안내를 받아 지하 세계로 가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이해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신에게 복종하지 않은 결과로 생긴 것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로마 6,23)이라고 한 성서 구절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죽음은 죄와 악이 초래하는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죽음은 삶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생명, 곧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 죽음과 함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생각은 희랍적인 사유의 내용이다. 전인적인 죽음 이후에 전인적인 소생에 관한 표상이 성서적인 죽음관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계기’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은 존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기인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해는 서구에서 통용되어 온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표상들 (잠, 해방, 재생)을 교정하는 것이다. 먼저 죽음은 ‘잠자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소멸’을 의미한다. 일단 소멸이 먼저 있는 후에야, ‘부활’이 현실화된다. 죽음은 곧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죽음은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오히려 부활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육신(‘불멸의 옷’, ‘불사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활한 예수에 대한 증언은 바로 예수의 변모된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죽음은 ‘재생’인가? 한편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생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그것의 무진장한 풍요성으로부터 개인들이 언제든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곧 불멸의 영혼이 새롭게 죽을 육신 안에서 또다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영에 의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이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요한 3,6).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영생 개념을 현세적인 생명의 무한한 연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은 없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모든 이가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선포하는 고유한 희망의 내용이다. 비록 그리스도교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다른 종교들에 비해 짧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죽음관은 상당한 정도로 우리의 죽음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죽음을 닫힌 종말이 아니라 열린 종말로 승인하고 수용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늘날의 죽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은 죽음을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한다. 현대문화 안에서는 죽음을 배제하고 기피하는 경향들이 증대되고 있다. 납골당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되었다. 시신은 물론 죽음을 연상시키는 숫자 4 따위도 멀리한다. 임종과 제사와 장례식에는 어른들만이 출입한다. 대가족 사회에서의 가정 임종은 사라지고 임종 순간이 병원의 관리 상황으로 놓여 가족들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는 특권을 빼앗긴다. 장례식장 문화가 죽음 자체에 대한 성찰과 망자와의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표현에 더 치중하고 있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주검, 망자를 아예 배제해 버린 살아있는 자만의 생활세계,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는 데서 말미암는 ‘죽어-버림’과 ‘죽여-버림’의 난무, 죽음과 관련한 금기나 신비마저 간과하는 상상력의 고갈 등이 우리의 이른바 ‘죽음 문화’를 이루고 있다. 흔히 우리는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말을 돌려댄다. 이말 속에는 나는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의식, 곧 그것은 익명의 다른 사람들의 일일 뿐이라는 일종의 피해가기가 있다. 또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직은 아니라는 안도감에 여유를 가져보기도 한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거리두기이다. 이렇게 되면 죽음을 진지하게 마주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하이데거는 이처럼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인간실존의 본래성을 거부하고 익명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일상인)이라고 불렀다. 여러 종교들이 전승해준 죽음이해(전승된 죽음문화)의 상실, 죽음관의 부재, 아니면 건강한 죽음 이해의 소멸은 곧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의 상실, 생명에 대한 외경의 포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신에 대한 자학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관을 지니지 못해서 생기는 삶의 현실이다. 이는 곧 ‘생명 문화의 상실과 부재’로 이어진다. 주검이 쓰레기로 치워지는 상황에서는 삶도 쓰레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죽음이 값싸지는 시장에서는 삶도 또한 그렇게 헐값이 될 수밖에 없다. 죽음이 신비를 잃으면 삶도 그렇게 메마른다. 죽음 앞에서 웃것을 여미지 못하면 삶 앞에서도 겸손할 수 없다. 죽음이 경제 논리로만 서술되면 삶도 그렇게 처리된다. 죽음이 삶 안에 있는 문화가 역설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문화라 말할 수 있다.

‘죽음의 기술’, 즉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죽음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가 된다. 죽음은 생명의 의미를 알고 성찰하여 생명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죽음을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생명의 신비와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하는 물음은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과 다른 것이 아니다.

중세 서양에 ‘죽음의 기술’(ars moriendi)이란 말이 있었다. 이 기술의 골자는 ‘좋은 죽음’, 즉 선종(善終)을 위해 미리 죽음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나쁜 죽음’ 곧 고백성사나 종부성사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죽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죽음관을 견지하든지, ‘죽음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이해는 곧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의 기도와 노동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온 엄룰 시토 수도회에서 인사말 대신 사용하도록 허락한 단 하나의 말이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드높이는 것이며, 죽음을 기억하는 문화는 삶의 문화로 이어진다. 예수회를 창설한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는 이라는 명상법 안내서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은 ‘마치 내일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충고를 던지고 있다. 그만큼 현재 이 순간의 삶을 치열하게, 후회 없이, 그리고 의미있게 살아가라는 당부이다. 중세 학자

의 서재를 소재로 한 그림에서 우리는 서가나 책상 위에해골을 놓아두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학자를 볼 수 있다(촉루관). 또 유럽에는 제단 앞 지하에 해골과 뼈를 차곡차곡 쌓아두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한 성당이 더러 있다.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보다 진지하게 살아가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죽음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는 ‘자살’이다. 일반적인 자살의 정의는 이렇다: “죽음을 삶의 방법이나 종말로 여기면서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동을 일컬어 자살이라고 한다.”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모방 자살’과 같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다.

고대로부터 서양에서는 인간이 삶과 죽음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고대 인도의 현자들 중에는 모든 악들로부터 해방되어 열반에 도달하고자 브라만교 축제 중에 과감히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대 티벳과 중국에서는 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치욕스럽게 죽지 않기 위해서 적들로부터의 도피수단으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도 수많은 종교적 자살이 있었다. 부녀자들과 노인들은 발할라(Wallhalla: 전사자들의 혼령이 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려면 자살해야 한다고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망자들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고대의 그리스 사회에서는 자살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가령 아테네에서는 자살자를 오히려 처벌했다. 자살자의 시체는 정상적인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자살자의 오른손을 절단해서 처벌을 알렸다. 그런가하면 엠페도클레스는 신과 합일하기 위하여 에트나화산에 몸을 던져 자신의 삶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자살이 금지되었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느님이기에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자살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서 자살을 무조건 금지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에 맡기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령 볼테르 같은 철학자는 자살이 개인의 권리가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대중의 생각은 대체로 계몽철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자살을 금지 내지 예방하는 것이 대세였다.

현대에 와서 자살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자살행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병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 중 90퍼센트는 우울증 환자라고 한다. 나머지 10퍼센트는 과민성 감수성 환자라고 한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에스키롤(Jean Esquival)은 자살을 정신병리학의 주제로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광기 속에서 자살의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모든 자살자들은 소외된 자들이다.”

현대의 유명한 죽음연구가인 셸리 케이건(Shelly Kagan)은 자살이란 “기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살한 이들에 대한 임사(臨死)체험 보고에 따르면, 자살한 이들의 체험은 한결같이 냉혹한 차가움과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이는 자살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의미와 존재를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인다. 관건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죽음의 문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케이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 대신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를 분노와 슬픔으로 검토한 후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감정을 제시한다. 케이건은 자신이 좋아하는 미국의 소설가 커트 보네거트(Kurt Vonnegut)의 저서 《고양이 요람(Cat's Cradle)》에 실려 있는 글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낭송할 기도문이라고 한다.

“신은 진흙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신은 진흙 덩어리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덕과 바다와 하늘과 별, 내가 빚은 모든 것을 보라.”

한때 진흙이었던 나는 이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봅니다.

운 좋은 나 그리고 운 좋은 진흙.

진흙인 나는 일어서서 신이 만든 멋진 풍경들을 바라봅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오직 당신이기애 가능한 일. 결코 나는 할 수 없는 일.

당신 앞에서 나는 그저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소중하게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아직 일어나 주변을 둘러볼 기회를 갖지 못한 다른 모든 진흙들을 떠올릴 때,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지만, 진흙들 대부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영광에 감사드릴 뿐.

진흙은 이제 다시 누워 잠을 청합니다.

진흙에게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내가 만나봤던, 일어서 돌아다니던 다양한 진흙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내가 만났던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죽음에 대해 갖는 감정인 두려움이 아니라 대신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고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감정으로 말하고 있다. 427 쪽. 이 시의 마지막 구절, “나는 내가 만났던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구절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바로 자신의 삶에서 마주했던 ‘사랑’ 때문이기도 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케이건은 ‘단 한 번뿐인 삶’이라는 소재목으로 죽음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을 살펴본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케이건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답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모두 조심해서 살아가야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해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이 파괴돼버릴 수 있다는데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험을 상기시켜준다. 자칫하다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케이건은 “어쨌든 죽음이 누구에게나 ‘빨리’ 찾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시간은 매우 짧고 귀하다.”고 말한다.